

## 이무현의 춘하추동



언론인 출신 사진작가 겸 본지 명예기자

남구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사진으로 소개하는 '이무현의 춘하추동'을 분기별로 게재합니다. 이무현 사진작가의 감각적인 영상과 따뜻한 필체가 평범한 일상에 깃든 특별함을 포착합니다. 지상 갤러리에 소개된 사진 외에도 더 많은 작품들이 남구청 홈페이지(www.bsnamgu.go.kr)에 수록됩니다.

## 동장군 그 너머 봄의 정령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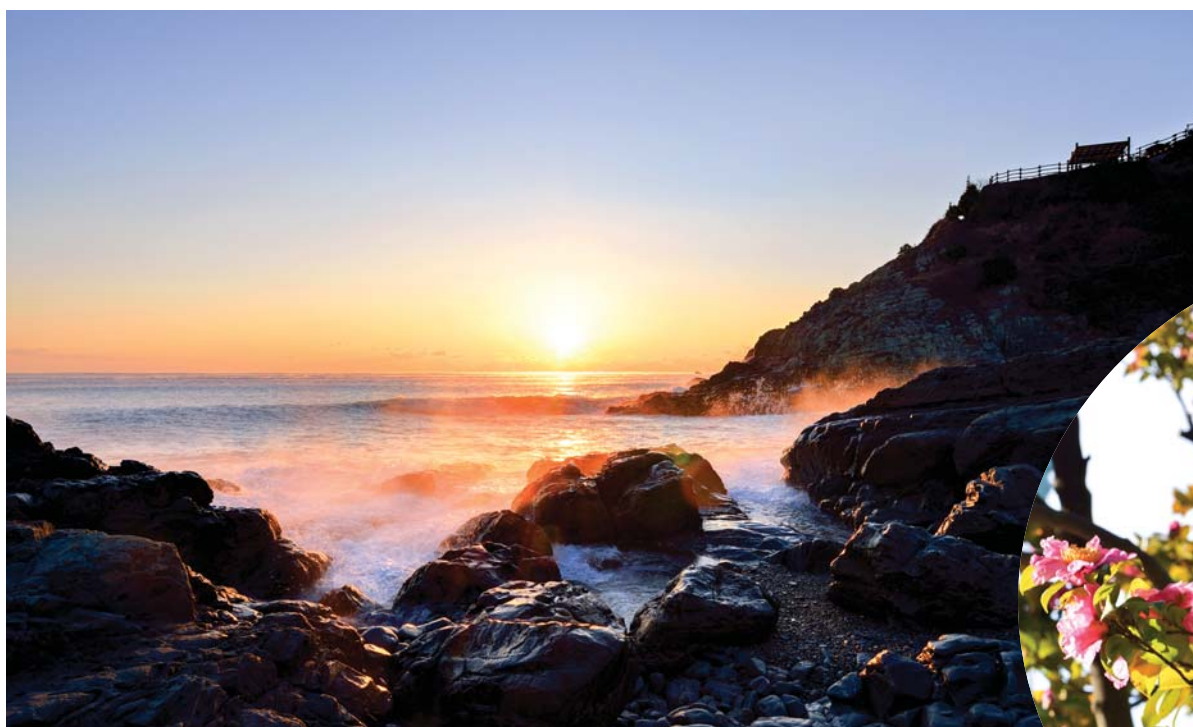
### 눈이불

부산에 '깜짝 폭설'이 내린 지난 10일, 문현동 마을 주택가 지붕에도 하얀 눈이불이 내려앉았다. 마을 뒤편으로 63층 부산국제금융센터가 눈발에 아스라이 보인다.



### 대연수목원, 사계절의 향기

대연수목원에는 겨울 동백을 시작으로 풍년화 등이 1,2월에도 향기를 뽐내고 있다.



겨우내 흑백의 천지를 쫓아 세상 어딘가에 숨었을 빗길을 찾아 나서는 계절이다. 순백의 눈과 겨울 풍경을 찾아 부산을 떠나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상대적으로 따뜻하다는 부산의 겨울 부산의 겨울은 결코 따뜻하지도 흑백의 천지도 아니다. 그러나 지난 가을 그 많은 색상이 이곳에 숨어 든 것일까. 남구 부산의 바다 이곳에서 오방색으로 오롯이 피어났다.

남구 바닷가 산책은 겨울 맑게 만든다. 이기대, 오륙도, 신선대 그리고 용당과 우암동. 묵은 길 오래된 골목을 누비다 보면 어느새 나는 앞으로 가는 것을 잊고 옆으로 비스듬히 계절을 하고 있음을 느낀다.

2018년 첫달, 바다는 따뜻한 미소로 다가왔다. 따뜻한 미소가 활박웃음으로 이어지는 기운이 바다에 가득했다. 꽃과 나비와 우리 이웃이 웃음소리를 듣고 찾아올 것이다. 작은 일에도 함께 웃어 줄 사람이 넘쳤으면 좋겠다.

### 이기대 동생말 물안개 일출

올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이틀간 지속됐다. 첫날은 물안개가 모기와 수준이어서 카메라는 그 모습을 담아 내지 못했다. 다음날 기온이 더 내려가 영하 9도를 기록하고 있었다. 일출 30분 전, 파도가 부서질 때마다 바위가 희미하게 일감을 토해내고 있었다. 먼 바다의 두터운 구름층을 뚫고 뜨거운 해가 솟자 바다는 가마솥처럼 끓기 시작했다. (이기대 동생말에서)

### 365일 멈추지 않은 남구의 심장

새해 감만부두와 신선대에 희망이 솟아 쉼 없이 드나드는 곳. 대한민국 도 하나의 심장이 이곳에서 활차게 뚫다. (용호동 불우리산에서)

